

해남서 살며 출퇴근…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 ‘속도’

군, 정주인구 10만 신도시 기대… 생활기반 마련 박차
‘첫마을 주택단지’ 내년 착공… 읍내 주거 인프라 확충

해남군이 정주인구 10만명의 솔라시도 기업도시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자족형 미래도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8일 해남군에 따르면 산업 성장의 성과를 전체 지역으로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기업도시 내 산업단지 조성에 맞춰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우선 솔라시도 기업도시 내 주거단지

로는 ‘첫마을 주택단지’가 조성된다. 첫마을은 기업도시 내 협단산업 종사자와 해남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솔라시도 내 최초의 공동주택 단지다.

기업도시 내 계획형으로 조성되는 만큼 주거와 업무, 생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주 모델을 지향한다.

군 산이면 일원 총 60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지난 1월부터 최고 29층까지 공동주택으로 계획돼 있다. 내년 6월 착공

·분양을 목표로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솔라시도 내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단지 조성도 추진된다.

약 4000세대 규모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국가 AI 컴퓨팅센터와 RE100 국가산단, 국제학교 증공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을 모색하고 있다.

이외에도 솔라시도 CC 인근에 스마트 그린빌리지(SGV) 주택단지로 약 2000세대 규모의 저저형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또 해남읍 권역을 중심으로 주거지 확

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읍에는 LH 아파트에서 400세대

규모 임대주택 입주가 내년 2월부터 시작

되고, 구교리에 294세대, 남외리에 305

세대 아파트의 신축공사가 진행돼 각각

2027년과 2028년 준공할 예정이다.

군은 향후 LH 및 고급 브랜드 아파트

건설사와 함께 솔라시도 기업도시의 조

성에 발맞춰 해남읍에서 출퇴근이 가능

할 수 있도록 주거용 주택 공급을 지속적

으로 늘려 나갈 예정이다.

해남군은 2028년 운영을 시작하는 국

가 AI 컴퓨팅센터를 비롯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RE100 국가산단 지정, 화원산단의 해상풍력 배후단지까지 집적화되면서

국가 AI·에너지 수도의 핵심 거점으로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10

만의 신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솔라시도는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해남의 미래 구조를 재편

하는 프로젝트다”며 “첨단산업 유틸 단

계부터 주거 인프리를 동시에 설계해 일

하고, 살고 소비하는 모든 과정이 해남

안에서 완결되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

고 있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8239@gwangnam.co.kr

진도 풍경·삶 극장 스크린서 만난다

내년 상반기 영화 ‘결혼해줄래’ 개봉 예정

진도군은 ‘농촌 산활력플러스 사업’의 하나로 제작한 영화 ‘결혼해줄래’를 2026년 상반기에 개봉할 예정이다.

영화 ‘결혼해줄래’는 수려한 진도의 풍광을 배경으로 학력과 사회적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 여성의 삶과 사랑, 공동체 안에서의 치유와 성장을 그린 작품이다.

영화 속 주인공 ‘수연’은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 진도로 돌아와 타인의 삶이 등장한다. 또 진도대파크림빵, 진도전복, 진도홍주, 진도개, 신비의 바닷길, 세방낙조 등 대표 관광 자원이 등장해 진도의 매력을 자연스럽게 소개한다.

진도=서석진 기자 ss9399@



사랑의 김장김치 ‘온기 후끈’ 진도 약사사(주지 체효 스님)는 최근 지역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스님과 신도,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3000포기의 김장 김치를 준비했으며, 정성껏 담은 김치는 지역 어르신들에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목포, 시민 체감 행정 강화 현안회의… 주요 사업 공유·점검

목포시는 최근 조례로 목포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권역별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권역별 주요사업을 공유·점검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그동안 부서별로 분산 추진되던 사업을 ‘권역 단위’로 통합 검토하고, 공동 논의하는 새로운 협업체계의 첫 단계이다. 시는 이를 통해 부서 간 정 보 단절과 행정 칸막이를 해소하고, 보다

유기적인 시정 운영 기법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점검회의는 삼학도권역, 대반동·선창권역, 원도심·복항권역, 섬권역, 갯바위·평화광장권역, 항만권역, 대양신단권역, 하당권역 등 총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첫 회의에서는 삼학도일원에서 추진 중인 14개 주요 사업이 공유됐으며, 사업 간 연계 가능성과 중복 여부, 현안 해결방안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

26일 전남도와 공동협약… 2034년까지 단계적 추진

전남도와 강진군은 오는 26일 강진종합운동장 내 웰니스푸드센터에서 강진만 횡단교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동협약(MOU) 체결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은 강진만을 중심으로 동서생활권을 직접 연결해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물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첫 공식 협력 단계다.

전남도와 강진군이 사업 추진의 기본 방향과 역할 분담을 공유하는 자리다.

해당 사업은 2026년부터 2034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향후 기본구상 용역, 타당성조사, 투자심사, 설계 등 단계별 절차를 거쳐 구체화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교량의 정확한 위치와 규

모 역시 관련 법적·행정적 검토와 함께 주민 의견,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하게 된다.

특히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소통을 중요 과제로 두고, 향후 용역과 행정 절차를 단계별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지방도로 지정된 해당 노선에 대해 국기지원지방도(국지도) 승격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강진=이진복 기자 sa433225@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신안, 시범사업 회의 개최

신안군은 최근 신안군보건소 회의실에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제1차 통합지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내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내 관련 기관 단체 간 연계 협력 강화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보건소, 7개 읍·면·동 당국자, 군청 노인건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내 돌봄·의료 기관·전문가 25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통합과정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 돌봄 욕구, 생활 환경을 종합 검토해 개인별 통합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통합지원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대상자 욕구와 서비스 연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사회 기반 통합돌봄 체계를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신안형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다”며 “주민들이 익숙한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기반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

환자의 몸은 말하지만,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빠른 속도, 막혀버린 흐름, 미세한 변화

환자의 몸은 수액에 반응하며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침묵의 언어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습니까?

아이링거는 그 들리지 않는 대화를 데이터로 번역하여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통역가입니다.

iRINGER

